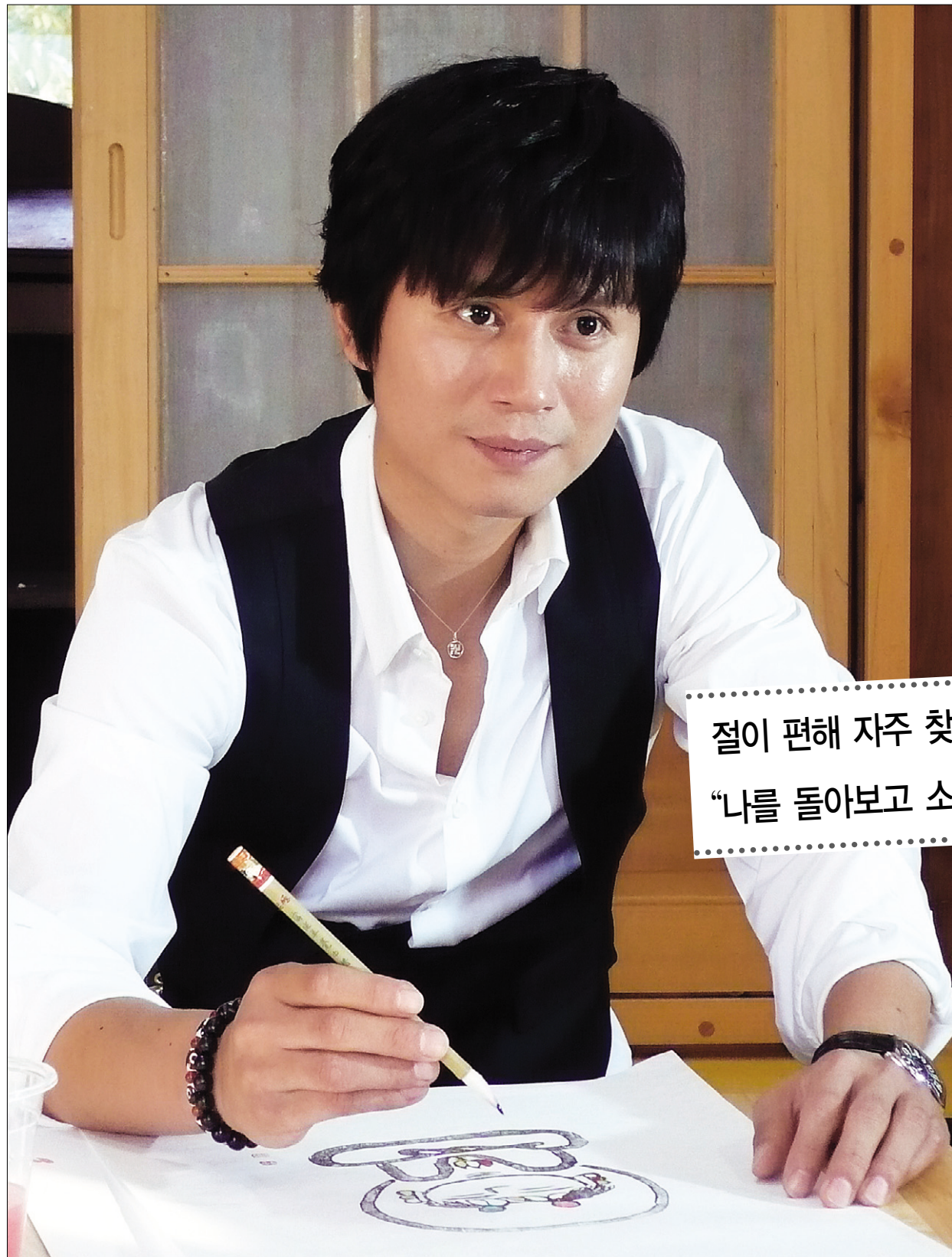


김민종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in 마곡사

마음 비우고 욕심 줄여 삶 자체가 수행



사불수행 중인 김민종

절이 편해 자주 찾게 돼... 지선 스님 아버지 같은 분
“나를 돌아보고 소중한 추억 만드는 시간 되길 바라”

김민종은 팬들과 함께 문수보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문수보살 채색은 내 안의 본래부처, 내 마음을 그리는 사불(寫佛) 수행이었다. “절에는 많이 왔지만 그림을 그리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그림에는 소질이 없어요. 그래도 유아시절로 돌아가 제 마음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며 시작했던 그는 “생각보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라며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불화그리기를 마치고 단주만들기 시간.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익숙한 일본인들은 다소곳이 앉아 정성스럽게 단주를 만들고 서로 마주보며 23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절 수행, 염불 수행의 문화가 낯설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한



김민종을 찾아온 일본팬들이 그와 함께 사불수행을 하고 있다.

치의 거부반응도 없었다. 고령인 탓에 다리가 불편한 이들은 앉아서도 족비 1타에 원을 담아 합장반배를 올리는 모습은 여지없는 참불자의 모습이였다.

100% 한식으로 저녁 공양을 마친 참가자들은 미니 콘서트장을 향했다. 팬미팅 시간이 되자 팬들은 고대하던 시간이었다는 듯 그의 방송과 노래, 연기생활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며 태화산 가을밤을 물들였다.



한국불교교회를 체험하고 있는 팬을 응원하는 김민종.

김민종은 팬미팅 자리에서 “일본에서 한국 33관음성지까지 성지순례하시는 불심 깊은 참가자들이 뜻 깊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란다. 특별한 의미를 찾는데 보다는 잠시나마 나를 돌아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불교문화와 정신문화를 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다. 불교국가인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입제식을 마치고 참가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

'품절 불자연예인' 김민종

불자스타 김민종은 외할머니가 스님이였다. 그와 불교의 지중한 인연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김민종이 사찰을 찾는 것은 이제 하나의 습관과 같은 것이라 한다.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 스님께서 용돈을 많이 주셔서 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해져서 가요. 중학교 시절에는 절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어요. 주변에 불자친구가 많아 함께 등산하면서 절에 갑니다. 또 종교를 떠나 동료들과 함께 절에 오면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편해진다며 좋아해요. 술을 먹다가도 친한 스님을 찾아가 다담(茶談)을 하기도 해요. 절에 가면 집에 온 듯 하고 또 집에서 못 느끼는 편안함과 고요함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불교가 제 성격과 맞는 것 같아요.”

그는 시간이 날 때면 경기도 소재 공덕사를 찾아 마음의 고요를 얻는다. 또 1년에 한번씩은 꼭 설악산 봉정암으로 기도를 떠나고, 때때로 장승백암사 지선 스님을 찾아뵙는다.

“개인적으로 설악산을 좋아해요. 몇 해 전 가수 강타와 함께 봉정암에 가면서 정말 고생했던 잊지 못할 추억이 있어요. 백암사 지선

춘마곡 추감사(春麻谷秋峯寺) 즉, 봄에는 마곡사 계곡에 핀 꽃을, 가을에는 감사(甲寺)의 풍성함이 일색이라 한다. 옛말 하나 그른 것 없다고 하지만 아니다. 마곡사는 봄도 가을도 아름답다. 완속미를 풍기는 마곡사계곡의 가을 풍취에 빠질 뉘랴. ‘찰라 찰라’ 막바지 단풍구경을 온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계곡을 타고 카메라 셔터 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천년 세월을 간직한 마곡사 5층탑이 모습을 보이자 발걸음을 재촉하다 못해 내달려 갔다.

짜잔~! 말쑥한 외모에 흰찰한 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심플한 만(卍)자 목걸이가 돋보이는 독실한 불자 연예인 김민종이었다. 천연 감염색 조끼를 맞춰 입은 100여 여인들이 관세음보살을 만난 듯 모습을 놓칠새라 크고 작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댄다. 김민종을 보기위해 멀리 일본에서 달려온 불자팬들이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창)가 주최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주관한 ‘김민종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in 마곡사’가 10월 24일 마곡사(주지 원혜)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일원에서 개최

됐다.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국 33관음성지 등 전통불교문화를 소개하고 관광객의 지방유치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33관음성지 순례는 일본 베이비붐 세대와 역사문화 관심층을 대상으로 유치된지 1년 만에 1만 5000여 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둔 인기 관광 상품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평도 먹고 알도 먹는 고품격 관광 프로그램에 스타와 팬미팅까지 하는 기회도 잡았다.

입제가 없으면 즐거운 회향도 없는 밤. 입제식에 앞서 한국 불교 의례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팬들은 절하는 법 등 기본적인 사찰에 절을 습득했다. 입제식에서 진행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장)은 “한국 불교계의 보물과 같은 관음성지 마곡사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게 된 인연을 시작으로 양국 문화교류의 더욱 큰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행사가 치러지게 된 것은 일상속에서 불자로서 생활포교를 실천해 온 김민종의 덕이 크다”고 말했다.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매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14-1 일본산 후리자(야행탄) 13-1 일본 영원향(소바라) 13-2 일본 영원향(소바라)

2-1 아광용 핑크 70 x 35cm / 2-2 밀납초 반야성경 70 x 35cm
2-3 복향초-아광용 70 x 35cm / 2-4 봉향백 전사지 70 x 35cm

7-1 P.C 컵 밀납초 받침대 / 7-2 P.C 컵 밀납초 연소시간 약 8시간
7-3 비람양초

5-1 웨딩초 육각초 70 x 45cm

15-1 액체 피러민 18L